

협회 창립 59주년, 2023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성료

김종철 한국임업신문 발행인 대통령표창 수훈
김관홍 메디칼업저버 발행인 동암언론상 수상



2023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후 수상자 및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박두환)가 '창립 59주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지난 11월 20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 관련기사 3·8·9면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 일본전문신문협회 이리사와 토오루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유관단체 임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식전 세미나가 진행됐다. 먼저 '인공지능 활용과 전문신문 발행'을 주제로 AI 전문가인 최진순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부소장이 발표했다. 이어 허과현 애널리스트협회 회장(좌장)의 사회로 최진순 부소장, 방두철 서울미디어그룹(이뉴스투데이·독서신문) 대표가 '인공지능과 매체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박두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전문신문은 정보의 깊이와 정확성,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해당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현재 전문신문은 인터넷신문을 병행하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진력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전문신문이 사회 각 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그동안 전문신문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경제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전문신문이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발전전문신문을 발행하며 관련 분야의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수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오늘날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신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전문신문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포상 시상에서는 김종철 한국임업신문 발행인이 27년간 임업발전과 임업인의 권익향상과 정부의 산림·임업 직불제 시행에 임업인·산림청간 협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은 전화수 악업신문 전무이사, 전주승 농촌여성신문 상무이사, 이재현 식품음료신문 취재부장, 백지선 국토매일 기자, 김성우 물류신문사 미디어사업본부장이 수상했다.

2023 전문신문의 날 기념사

전문신문,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박두환 회장

전문신문의 날을 자축하기 위하여 기꺼이 동참하여 주신 회원여러분과 전문언론인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곳곳하게 전문신문의 정도를 견고 계시는 회원사 여러분을 뵈 때마다 동병상련의 뜨거운 정을 느끼며,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1964년에 창립된 우리협회는 지난 59년 동안 전문언론계의 구심체 역할을 다 해오면서 우리 문화 창달과 함께 각 산업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신문은 정보의 깊이와 정확성,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해당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는 다른 미디어와는 차별화된 전향적인 뉴미디어를 만들겠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진 회원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전문미디어를 2부 언론의 관점으로만 조망하기보다는 '산업발전의 견인차'라는 관점에서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화 홍수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격하며, 국민민복에 이바지하고 있는 전문신문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협조는 합당한 배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전문신문들은 인터넷신문을 병행 발행하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으며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획과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전문신문 회원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교류 방식의 변화, MZ세대의 영향력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 등 새로운 키워드를 주목하여 적극 부응하면서 발전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전문신문을 통해 사회 각 분야 발전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갈망합니다. 끝으로 품격 있는 신문, 정직한 신문, 독자의 사랑받는 신문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써 오신 영예의 정부포상과 동암언론상, 전문신문상, 수상자여러분께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앞날의 빛나는 장도를 기원합니다.

또한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에서는 김관홍 메디칼업저버의 발행인이 동암언론상을, 오경섭 일요저널 대표, 방두철 서울미디어그룹(이뉴스투데이·독서신문) 대표가 경영상, 김영길 축산신문 편집국 부장, 김재형 가스신문 취재부 부장이 취재상, 황미선 의학신문 편집기자, 허수영 원예산업신문 편집부 차장이 편집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2023 전문신문의 날 59주년

한국의 전문신문 대도약 계기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박 두 환

임업인의 영원한 동반자
한국임업신문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배 골프대회...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우승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박두환)는 지난 11월 7일 코리아CC에서 '2023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사의 화합과 골프동우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신문 골프동우회는 회원사 간 친목과 건강증진과 유익한 정보 교환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전문신문 골프동우회 유태우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발행인, 대표이사, 임원 등이 참석해 경기를 펼쳤으며 시상식에는 박두환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치열하게 펼쳐진 경기 결과, 방재홍 독서신문 발행인이 우승해 축하를 받았다. 이밖에 한국약국신문이



전문신문 골프동우회 유태우 회장이 시상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치 발행인이 메달리스트를 차지했으며, 소비자경제신문 한상희 발행인이 니어리스트를 차지했다. 한편 골프대회는 지난 2017년부터 전문신문 언론인들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비롯한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개최해오고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이번달 열린 '전문신문인 건강걷기'에 함께한 회원들이 트레킹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회, 11월 전문신문 건강걷기 개최

전문신문산우회(회장 양영근)가 단풍의 계절을 맞아 '전문신문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4일 진행했으며, 한국전문신문협회 박두환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에서 모여 평화의 문과 한성백제박물관을 지나 몽촌토성으로 이어지는 코스

를 트레킹하며 격무에 지친 일상에 잠시 벗어났다.

다음 일정은 오는 12월 2일에 실시하며 창덕궁과 경향궁을 잇는 코스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신문 건강걷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02-334-72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제1회 철도인한마음오픈대회' 성료

철도경제신문

철도경제신문(발행인 백용태)이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코스카운트리클럽에서 '제1회 철도인 한마음 오픈대회'를 개최했다.

철도인 한마음 오픈대회에는 총 30팀, 120명이 참가해 메이플·파인·릴리 등 3개 코스로 나눠 경기를 진행했다.

단체전에는 서현기술단, 고려차량,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철도차량엔지니어링, 대아티아이, 전기철도기술협회, JKA, 에스트랜스포트, 철도전문인재뱅크, 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다원시스, DNV, 신우이엔지 등에서 팀을 꾸렸다. 모두 16개 팀이 이번 대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개인전에선 서울과학기술대, 우송대, 한라대 등 학계와 철도연 등 연구기관, 전기철도협회·신호기술협회·철도차량엔지니어링 등 협단체, 그리고 차량·궤도·토목·신호·통신 분야 등에서 약 25개 기업, 14팀이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전기철도협회는 단체전 1팀과 개인전 8명이 출전하는 등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로 기록됐다.

또 철도연·철도차량엔지니어링·철도신호협회 등에서도 단체·개인전에 각 1팀씩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이 방식은 사전에 비공개로 정한 홀의 스코어를 기준으로 각 경기자의 핸디캡을 산정, 경기 결과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경기 운영과 점수 산정을 위해 창상훈 우송대학교 교수와

KLPGA 정주원 프로, 민인숙 프로 등 3명을 경기운영위원으로 초청했다.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은 전기철도기술협회가 거머쥐,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준우승은 대아티아이 차지했으며, 3등에는 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전에선 김상래 태명실업 이사가 우승을 차지해 상금 100만 원을 받았고, 철도신호기술협회 박종민 이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장형식 삼보기술단 사장은 74타를 쳐서 최고 고수인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 전문신문 산우회 12월 건강걷기 안내 ☞

이번 행사는 전문언론인들의 친목과 지식 함양을 위하여 고궁 답사를 실시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회식도 있을 예정이니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12월 2일(토) 오전 10시
- 집결장소: 3호선 안국역 3번출구 앞
- 코스: 창덕궁-창경궁-인사동(약 2시간 소요 예정)
- 별도 회비 없음.
- 문의: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02-334-7251)

부고

화광신문, 이케다 SGI 명예회장 별세



인간 생명의 존엄한 가치와 세계 평화를 부르짖던 재가자(在家者) 중

서 왔다.

특히 고인은 일본의 제국주의 성향 우익 비판에 선대에서 큰 저항을 받아온 페미니스트였다.

또한 고인은 한국을 일본문화 전수의 보은의 나라라고 평소 감사했으며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안창호 선생 등 일제에 항거한 우리의 독립투사와 선열 등을 거침없이 존경해 온 지한파(知韓派) 평화주의 종교지도자였다.

SGI에 따르면 이케다 회장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별세했으며 조촐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일본 마이니치와 NHK는 보도했다.

고인은 지난 1960년 SGI 3대 회장으로 취임, 재임 63년간 불교 범화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참인간의 본연과 전쟁 없는 평화, 인간혁명을 통한 지구촌의 깨끗한 환경 등을 주창하는데 앞장

평화의 사도로 통한 고인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희대·한국외대·경남대·충북대 등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30여 세계 유명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귀하고 드문 대한민국 문화 훈장 화관장까지 수여받았다.

한국SGI는 분향소를 분부강당에 설치해 지난 22일부터 조문을 받았다.

김시중 대기자 kosna1964@naver.com

창간 35주년 기념 '메타버스 전시관' 오픈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발행인 홍준)이 창간 35주년을 기념해 메타버스 전시관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전시관은 한국대학신문의 35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를 담은 콘텐츠로 꾸며졌다. 전시관은 △로비 △35주년 발자취관 △35주년관 등 총 세 가지 테마 공간으로 구성됐다.

각 전시관에는 기념 동영상과 사진을 비롯해 지난 35년 동안 국내 대학과 한국대학신문이 함께 걸어



온 발자취가 담겨있다.

이번 기념관은 추계예대 메타버스 졸업전시회를 구성했던 tm메타와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졌다.

한국대학신문 메타버스 전시관은 <https://meta-unn.net>과 한국대학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2023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 축하 ◊

■ 한덕수 국무총리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59주년을 맞이한 한국전문신문협회 박두환 회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신문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경제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신문이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속히 팽창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신문인 여러분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보와 사실에 근거한 진짜 뉴스를 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모든 전문신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현입니다.

창립 59주년을 맞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전문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문신문을 발행하며 관련 분야의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수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59주년과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박두환 회장님과 전문신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오늘 정부포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전문언론계의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소식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며 건전한 저널리즘의 역할을 선도해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와 그 안에 넘쳐나는 이야기 속에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문신문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제문화 콘텐츠의 핵심 인프라로서 전문신문이 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리사와 토오루 일본전문신문협회 이사장



오늘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 저희를 초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4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일본전문신문협회 이리사와 토오루 이사장입니다.

지난달 18일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전문신문대회에 박두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참석해주셨으며, 박두환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근래에 보기 드문 친목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양국협회 역시 지난 1991년부터 가나긴 우정의 역사를 지내오고 있는데 이는 여러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관계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과 일본이 교류와 친목을 보다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양국협회는 한국협회의 초청으로 한일합동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본전문신문협회 임원들은 모두가 참석하길 희망하며 양국협회의 교류의 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정치,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관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업계에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특히 생성 AI 활용 등으로 경영 환경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양국협회는 전문신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당면해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단히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한국전문신문협회의 모든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제59회 전문신문 창립기념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우리나라 전문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장기간 전문산업 및 전문신문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회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 홍수 시대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신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59회 전문신문 창립기념일이 한국전문신문협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축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59주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보승희 무소속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존경하는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여러분, 한국전문신문협회의 창립 5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신문은 근대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온 미디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및 지식 전달에 있어 빛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 제공을 통해,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정보가 널리 퍼져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여러분의 자긍심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식 및 정보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신문이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문신문을 개발하고,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가 전문신문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신문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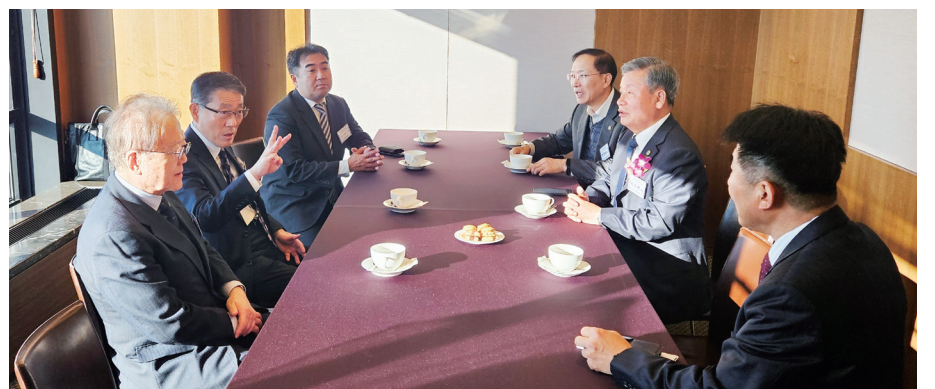
2023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모든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시상식에 앞서 창립 59주년을 맞이한 한국전문신문협회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선국설열 및 전문언론인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본식에 앞서 한국전문신문협회 박두환 회장, 하현봉 상근부회장이 일본전문신문협회 이리사와 토오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단을 맞이하고 있다.

‘Psycare: 차세대 뷰티 시장의 기회’ 심포지엄 성료

화장품신문

화장품신문(발행인 함용헌)이 뷰티스트립즈와 함께 ‘Psycare(사이케어): 차세대 뷰티 시장의 기회’를 주제로 펼친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뷰티 시장에 새로운 카테고리인 퍼스널 케어, 색조 화장품, 헤어케어 시장과 혁신에 있어서 사이케어의 잠재력에 대해 토론했다.

심포지엄은 사이케어가 뷰티 산업에서 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소개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뷰티스트립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이클 놀테 수석 부사장은 “아름다움은 정신 건강, 개인적인 보살핌,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포함하도록 재정의되고 있다”면서 “사이케어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핵심 뷰티 카테고리로서 자리 잡아 스킨케어부터 향, 건기식, 홈뷰티 테크 등 전 분야에 걸쳐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 전문가 셀린 엘레나(Céline Ellena)와 란 부 대표는 ‘향기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담했다. 셀린 엘레나는 사이케어가 향수의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들려줬다. 그는 “향수의 주요 기능이 몇 해전까지는 자기 표현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었던 최근엔 심리적 웰빙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로레알의 프로스펙티브 팀을 이끌고 있는 바바라 두사드 디렉터와 뷰티스트립즈 미켈레 수페르치 부사장은 사이케어가 피부관리, 퍼스널 케어, 색조 화장품, 헤어케어 시장과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바바라 두사드는 “사이케어는 ‘새로운 뷰티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케어가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향수 등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바라보는 내다봤다.

이어 한국화장품학회 박영호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화장품협회 이세훈 회장, 최대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본지 김혜림 편집국장, 마이클 놀테가 토론자로 나서 K뷰티 산업에 있어서 사이케어의 잠재력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K뷰티 시장에서

이미 사이케어 운동이 시작됐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사이케어 화장품 카테고리의 시장 규모와 성장가능성, K뷰티에서 사이케어 운동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카테고리, 사이케어를 K뷰티 글로벌 마케팅에 적용할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놀테 수석 부사장은 스킨케어와 퍼스널 케어, 남성 그루밍, 향기, 메이크업, 헤어 등 각 부문에서 사이케어를 접목해 3년 안에 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을 소개해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팀까지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떠오른 카테고리인 ‘사이케어’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를 적용해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까지 알려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쌀산업 발전 앞장서는 쌀전업농 되길”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업신문(발행인 이은만)이 ‘2023년 전국 쌀대축제 소비촉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신문이 주최했다.

전시회에서는 도별 쌀 우수브랜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새끼 꼬기, 절구 체험 등을 진행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포장 쌀을 배포하는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도 함께했다.

이러진 제26회 전국고품질쌀생산 우수쌀전업농선발대회 시상식에서는 윤진영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이승관 해남군연합회장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입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쌀문제로 회원들의 고민이 많다. 20만원 쌀값 유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쌀전업농이 출범 26년을 맞고 있다. 쌀산업에 애정을 갖고 더 발전하는 쌀전업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환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데 쌀값이 아쉽다. 쌀적정생산으로 쌀 생산량은 줄었지만 농협으로 버가 몰리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40만톤 사료곡으로 처분하고, 12만톤 공매도를 하는 등 대책을 펼치고 있다. 격리를 하면 내년 단경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격리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 틀 벗어난 유연한 사고, K뷰티 미래 이끈다”

주간신문 CMN

주간신문 CMN(발행인 조병호)이 코스메카코리아 후원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2024 화장품 산업 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뷰티! 진짜 미래는?’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컨퍼런스는 △마케팅 △상품 △글로벌 △유통&소비 4개 분야별 전문가들이 뛰어난 통찰력으로 K뷰티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더 빠르게, 더 다양하게, 변화하며 초개인화된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호도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뷰티 기업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세계 뷰티 시장에서 앞서기 위해 넥스트 K뷰티가 나아가야 할 ‘진짜’ 미래를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1강 글로벌은 최치호 씨티케이코스메틱CIC 대표가 ‘플랫폼의 정의와 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최 대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가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데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의 피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국인들의 피부에 최적화된 제품이 해외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판단은 오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강 상품은 조현대 코스메카코리아 기술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조 원장은 내년에 유행할 제품과 트렌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외선 차단 기능이 필수가 됐기에 앞으로는 SPF 기능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전문가를 통해 원료를 큐레이팅하고 피부 고민을 눈에 띄게 개선해주는 메디칼 대안 뷰티 제품이 떠오를 전망이다.

3강 마케팅은 이영진 아모레퍼시픽 넥스트뷰티 디비전 상무가 연자로 나서 아모레퍼시픽의 혁신 사례와 화장품이 아닌 새로운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상무는 “넥스트뷰티로 상징되는 ‘뉴 뷰티’는 △라이프로 확장되는 △디지털로 연결되는 △공감으로 시작되는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모레퍼시픽의 △기술력 △영향력 △기획력과 타 업종의 △IP기획력 △콘텐츠 제작 능력 △공연 및 행사 운영 역량 등이 합쳐져 성공적인 결과물을 나타냈다. 이중 업종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정답은 아니어도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4강은 이기쁨 칸타 월드패널 뷰티섹터 부장이 ‘국내 화장품 시장 조망’을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장 상황과 달라진 소비패턴을 비교 분석하며 화장품 구매의 흐름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유통채널별 달라진 점유율과 변화의 원인에 대해 진단한 결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해소시켰다.

이날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튜브 씨엔엔TV 채널(<https://www.youtube.com/@CMN-TV>)에서 볼 수 있다.



한국금융신문 ‘이사회 인물뱅크’ 서비스 오픈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발행인 김봉국)이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내·사외이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입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사회 인물뱅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사회 인물뱅크’는 기업별 이사진 구성과 특징 등 이사들의 면면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사회 인물 정보의 총체적인 산실이다. 현직 이사진 및 사외이사 후보군과 기업의 인재 발굴 수요를 연결하는 디지털 인재 플랫폼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대한민국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서 활동하는 이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별 이사들의 소속, 직급, 전문 분야, 출생일, 취임일, 임기, 학력, 주

요 경력 등 심층적인 정보는 DB로 축적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금융신문은 등록된 이사진의 경영 활동과 이사회의 최신 소식과 관련된 기사도 연계 서비스한다.

‘이사회 인물뱅크’는 전략·인사·재무·회계·생산·마케팅·법률 등 12개 전문 분야별 인물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유능하고 적격인 이사진 후보를 선정하려는 기업은 ‘이사회 인물뱅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주식투자자들은 기업 이사진의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투자 판단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사외이사 희망자는 직접 ‘이사회 인물뱅크’ DB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전현직 기업인과 공무원, 기관·단체·협회 임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회원서비스 강화 공보·홍보 대 혁신

치의신보

치의신보(발행인 박태근)가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고 3만여 치과 의사 회원들의 품으로 다가간다.

종이신문 형태의 치의신보를 그대로 디지털로 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가 오는 12월 5일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치과 의사 회원 모두가 개인 PC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치의신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은 "디지털 시대,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은 행보로 회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공들인 만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협의 발전과 잠재적인 힘을 기르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치협 간행물 등 지적 재산에 대한 회원들의 접근성도 높아져 그 가치가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민정 치협 공보담당 부회장은 "치의신보를 기존 종이신문과 온라인 뉴스로 배포하던 시스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좀 더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치협과 회원 간 거리를 좁히고 빠르게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PC, 모바일서 종이신문 볼 수 있어=디지털 치의신보는 △종이신문을 그대로 구현한 'E-BOOK' △치과계 다양한 현안과 유익한 정보를 영상 뉴스로 만든 '치의신보TV' △



치의신보 핵심 뉴스를 정리한 '주간 핫뉴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한 시각화 편집 방식이 돋보인다.

또 E-BOOK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간편하게 구동할 수 있고, 종이신문에 필적하는 화질과 선명도로 PC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장점도 눈에 띈다.

치협 발행 모든 간행물 디지털화 가능=이번 '디지털 치의신보' 사업은 지난 7월, 사업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의 결실이다. 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여론 수렴, 회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 발송 플랫폼 암호화 사업자 선정, 치과 의사 전 회원 공지까지 모든 제반 준비를 신속히 끝마쳤다.

특히 치의신보는 이번 사업으로 E-BOOK 등 디지털화 작업에 필요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종이신문 외에도 치협에서 발행하는 모

든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해 전국의 치과 의사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회원 개개인이 치협 간행물, 영상 콘텐츠, 대외원 공지사항, 디지털 치의신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등 유용한 각종 정보를 간편하게 받아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보 기능 강화, 비용 절감 '두 마리 토끼'=디지털 치의신보는 종이신문 쇠퇴로 급변하는 전 세계 언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치과 의사 회원 외에도 치과대학생, 치과계 업체 관계자, 치과위생사, 치과기사 등 치과계 가족 모두에게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신문 열독률 상승으로 매체 공신력 강화는 물론, 독립채산제로서 회원들의 회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체 광고 수주를 통해 운영되는 치의신보의 경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유총연맹 홍보분과 아나운서 자문위원단 추가 위촉

일요저널

일요저널(발행인 오경섭)이 발행하는 국민앵커 소속 아나운서와 기자들이 한국자유총연맹의 홍보분과 자문위원이자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지킴이 아나운서로 위촉됐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서울 남산 한국자유총연맹 5층 VIP 접견실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홍보분과 위촉식에서 국민앵커에서 추천한 7인의 아나운서, 기자를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한

일요저널(발행인 오경섭)이 발행하는 국민앵커 소속 아나운서와 기자들이 한국자유총연맹의 홍보분과 자문위원이자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지킴이 아나운서로 위촉됐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서울 남산 한국자유총연맹 5층 VIP 접견실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홍보분과 위촉식에서 국민앵커에서 추천한 7인의 아나운서, 기자를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한

해 아나운서와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출신의 IT 전문 엄지현 아나운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출신의 일본 전문 권혜연 아나운서, 국민앵커의 유일한 청일점 스포츠 전문 이주현 아나운서, 영어 전문 임수빈 아나운서, 30여개의 자격증을 가진 라이선스 전문 김혜선 아나운서, KBS리포터로 활동중인 리포터 전문 조혜민 아나운서, MZ세대 막내 부터 전문 강소리 기자 등 총 7명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아나운서 및 기자들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지킴이 아나운서와 기자로 활동하게 된다.

의협 창립 115돌 “신뢰받는 전문가단체 자리매김”

의협신문

의협신문(발행인 이필수)을 발행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식을 갖고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협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11월 15일 '의사연구회'로 출발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하여, 오늘날의 14만 회원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우뚝 서게 되었다"며 "우리가 쌓아온 115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역사"라고 그 의미를 짚었다.

이어 "보건의료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가장 우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의사협회가 더욱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근속 직원 등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20년 근속-김상구 의무법제국 국장·이종선 학술국 의료감정팀 팀장·허혜진 총무국 총무팀 과장·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정환 의협신문국 기획콘텐츠팀 팀장·김학준 의협신문국 기획콘텐츠팀 과장 △10년 근속-김윤아 총무국 재무팀 대리·홍완기 의협신문국

산업팀 기자·이승우 총무국 홍보팀 과장 △우수직원 포상-김은숙 총무국 총무팀 차장·김은경 대의원회 사무처 주임·박재희 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 대리·조시형 보험국 보험급여팀 대리·김상구 의무법제국 국장·이재용 의무법제국 의무팀 팀장·김준환 학술국 학술교육팀 대리·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박장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사무처장·최연희 대구광역시 의사회 국장·피광옥 경상북도의사회 대리·김재성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분쟁조정부 부장.



2023 해운신문 올해의 인물 7인 선정

한국해운신문

한국해운신문(발행인 이철원)이 '2023 해운신문 올해의 인물' 수상자 7인을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해운신문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 해봉꿈이음장학재단이 후원한다.

한국해운신문은 염정호 한국해운중재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올해의 인물상 선정심사위원회'를 지난 16일에 개최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해봉 배순태 특별상'에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초연합회 회장, '외항선사 부문'에 조

병호 화이브오션 사장, '공기업·협회단체 부문'에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항만산업 부문'에 최현후 고려항만 대표이사, '여객선 부문'에 김정호 부관웨리 COO, '내항선사 부문'에 이형영 씨월드고속웨리 회장, '국제물류 부문'에 박무자 서울항공 화물 대표이사 등이 선정됐다.

이번 2023 해운신문 올해의 인물 시상식은 오는 12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해운신문은 매주 2023 올해의 인물 수상자들의 인터뷰를 연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여성신문 창간 17주년 특집] 농촌여성 디지털 활용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여성농업인, 디지털 정보화 활용도 76.5%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으로 농업·농촌사회도 디지털·스마트화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청년농이나 남성의 전유물로 치부되는 디지털·스마트 농업기술은 여성의 관행 농작업을 고착화하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농촌여성신문은 창간 17주년을 맞아 여성들이 디지털·스마트 전문능력을 배양해 선도적인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 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농업생산 30% 스마트농업 전환?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내세우며 지난해 10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R&D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에게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관련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경기 농업대학 스마트농업과 올해 전체 교육생 27명 중 여성은 단 5명에 불과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스마트팜 이해와 스마트농업 현황, 시설하우스 환경관리, 농업 전기전자의 기초, 스마트팜 제어 이론·실습 등을 교육하는 스마트농업과는 올해뿐만 아니라 여성 교육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전자상거래와 온라인마케팅의 이해, 스마트스토어 가입·작성 실습, 유튜브 동영상 촬영과 편집 등 과정의 농산업마케팅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 지도기법·교수 학습법, 농촌체험 현장 교육, 비대면 체험 등 과정의 체험전

문기양성과는 여성 교육생이 절반 이상이다. 최근 들어 방제 작업에 활용되며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 드론 관련 실정도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드론 교육을 실시해 활성화된 전남 영광군의 경우 영광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250명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이 중 여성 교육생은 20명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교육생 40명 중 여성은 3명뿐이다.

체계적·전문적 교육 뒷받침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고 저연령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민 디지털 정보화 활용 정도는 일반 국민으로 대변되는 도시민보다 낮았다.

지난해 모바일기기 보유율은 일반 국민 98.3%, 농어민 84.3%였으며, PC 보유율은 일반 국민 72.4%, 농어민 60.3%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컸다.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농어민의 이용 능력은 70.6%, 활용 정도는 78.8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정도는 82.5%인 데 반해 여성은 76.5%로 뒤떨어졌다.

모바일기기 보유율 역시 남성 농어민이 87.8%, 여성이 80.6%다. PC 보유율은 남성 농어민이 62.9%, 여성 57.6%로 조사됐다. 변화하는 디지털기술에 농업인, 특히 여성이 적응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기도 하다.

[농촌여성신문 창간 17주년 특집] 농촌여성 디지털 활용실태와 활성화 방안은

농촌여성이 행복해야 사람이 들어온다

노동부담 크고 권한은 작다

지난해 농가인구는 217만명 수준으로 20년 동안 40%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4.2%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촌이 49.8%로 전국 평균보다 세 배 가까이 높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난해부터 10년간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출연해 조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이는 인구감소의 원인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젊은 여성 인구의 상대적 감소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실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88만6천명으로 농업인의 48.4%를 차지한다. 2015년과 비교하면 농업인은 전체 9.5% 감소한 반면 여성농업인은 11.3% 줄어 여성의 감소가 급격한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농업인은 18만5천명이 감소한 반면 귀농 여성은 2만 여명, 가족을 따라 농촌으로 이주한 여성도 3만 8천명에 불과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지난해 상장법인 전체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이 8676만원이었던 데 반해 여성은 6015만원에 머물렀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농업·임업·어업(43.8%)이었다.

2021년 기준 농업 주종사자 중에는 여성이 51.9%를 차지하지만, 농가의 농업경영을 총괄하는 경영주는 18.7%에 불과한 현실은 농업경영 권한의 성별 격차를 보여준다. 또한 농업인으로서 공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생산자 단체인 농협 운영에 참여하는 농협조합원 중에서도 여성은 34%에 불과하고,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더욱 제한적이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지만, 농가 수준에서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농업인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사노동 역시 여성농업인이 전담하는 가운데 성별 노동 부담 격차도 크다.

이 같은 농촌사회의 고질적인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



가들의 진단이다. 농촌사회 안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성평등에 관심이 높은 여성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의식 갖고 다양한 시도 모색

개인적 차원에서 남편을 대상으로 가사(돌봄)노동 분담을 요구하거나, 불평등한 일상적 관행을 깨기 위해 주위 사람들 설득에 나선다.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사업을 벌이는 한편, 주민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더 나아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도시와 다른 시책 마련을 요구한다. 하지만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요구에 부응하는 사례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여성이 행복한 농촌이어야 농촌에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들어온다.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농업·농촌에서 여성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변화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사회 기존의 구조를 유지한 채 여성이 그 구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여성이 수행하는 가내 역할을 지원하는 등 여성에 특화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 마을, 생산자 단체 등을 포괄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성별 지위와 권한, 부담의 격차에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여성, 남성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는 접근이 본격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인터뷰] 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

“디지털농업은 미래농업의 중요 도구... 농촌여성도 변화·혁신의 주체 돼야”



농촌여성들의 디지털 농업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은.

과거에는 농업인에게 농기구, 농기계에 대한 작동방법과 작물 재배 기술 등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농업이 스마트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농업기술에 대한 역량을 갖춘 여성농업인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디지털 농업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컴퓨

터 교육을 시작으로 디지털기기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농업에 대한 여성농업인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사례를 알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활용성과 장점을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농업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작물의 생육, 병해충 발생 가능성, 기후변화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와의 연결, 브랜드 홍보,

온라인 판매 플랫폼 관리 등에 참여해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를 이뤄내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고,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농업기술, 드론 기술, 인공지능 등의 분야 농업기술 개발, 농산물 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패키징을 비롯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농기업 창업과 참여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

디지털농업 활용을 통한 여성농업인들의 일과 삶의 변화상은.

효율적인 농업 관리다. 스마트 농업기술의 도입으로, 여성농업인들은 토양 수분과 영양 상태, 병충해 발생 가능성, 기상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농작물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디지털 플

랫폼의 마케팅에 따른 시장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농업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디지털농업은 미래농업을 위한 중요한 도구다. 여성농업인들도 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돼 더 나은 농업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꾸준히 새로운 기술과 동향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농업경영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주변의 농업인,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성장에 효과적이다. 전문가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농업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농업의 변화와 혁신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 가치와 효과를 평가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주간기독교 창간 53주년 인터뷰]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동현 원장

“AI 시대의 교회, 변화를 받아들이되 변질되어서는 안 돼”



AI 시대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도구들을 목회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AI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이러한 분야에 오랫동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교회정보기술연구원을 창립한 이동현 목사를 만났다. 이 목사는 '구글안정정복', '스마트전도법',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선교적 활용' 등 다양한 저술 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강연도 진행하고 있다.

자들의 주 사역인 문서사역에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영상제작, 사진 편집 등의 일들이 인공지능과 접목되어 빠르고 손쉽게 작성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서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이로 인해 남은 여분의 시간에 더욱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이외에도 전도사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전도법인 카카오톡 전도법과 인공지능이 통합되어 전도대상자의 심리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목회 영역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대체하지 못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교회 일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설교에 사용할 이미지나 영상, 설교초안, 문서작성과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더욱이 2025년 이후 자율형 자동차 출시와 함께 2029년부터는 자율 운행 자동차의 출고가 50% 정도가 될 경우, 교회 버스 운행에서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반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영역으로는 창의성과 감성영역 내지 공감영역이 아닐까 생각해요. 기술의 조합으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창의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야이죠. 더욱이 공감영역 부분은 목회자가 신자들과 함께 나누는 영역이잖아요. 신자들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죠. 이것은 단순히 기계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물론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감성과 영혼을 울리지는 못할 겁니다.

목회자는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요?

고(故) 이어령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의 말에 올라타는 게 중요하지 경쟁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대중화되고 변화의 중심이 될 때도 여전히 보수적인 목회자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목회자 분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과거 손으로 설교원고를 작성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워드프로세스를 통해 작성하는 시대가 되었고, 다음 세대에는 말로 설교원고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낯설고 부담스럽겠지만 이런 시대는 이미 도래되었어요. 인공지능을 목회자의 비서로 활용하면서, 나아가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창작이 필요한 부분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공지

IT 관련 전문세미나와 목회자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기억에 남는 교육 사례나 사람이 있으신가요?

교회정보기술연구원에서는 교회인프라사역 세미나, 교회정보화세미나, 스마트목회세미나, 제한지역선교사를 위한 보안세미나, 카카오톡전도세미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해 오고 있어요. 제한지역선교사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서 추방되거나 수감되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을 시켰어요.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역 선교사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을 때 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선교적 사명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카카오톡 전도세미나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기술 선교를 한 것에 대해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단순히 기술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을 통해 복음사역과 선교사역에 작은 축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목회사역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코로나19 이후부터 한국교회의 목회사역은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반화되어 목회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예배를 중계하고 목장예배와 같은 소그룹 모임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모이는 등의 일들이 어렵지 않게 살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더욱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으로 설교자와 목회자들의 사역에도 크게 변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주석을 보거나 검색엔진이나 미디어를 통해 설교자료를 찾았다면,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통해 설교 초안을 잡거나 설교 내용을 다듬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향후 2-3년 이내에는 대부분의 젊은 목회자들은 사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부교역

[주간기독교 창간 53주년 기념사]

AI와 가짜뉴스



김민홍 발행인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자, 가짜뉴스가 봇물을 이루었다. 그중에서 으뜸은 교회 폭격 영상이다. 전쟁 초기에 SNS 게시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간 영상물이다. 이 교회는 가짜지구 내 가장 유명한 유적지로 그리스정교회 소속이다. 교회 측에서 영어 등 4개 언어로 가짜뉴스임을 직접 발표해 진실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를 뺏칠 정도로 파괴력이 세다. 2013년 5월 13일 “백악관에서 두 차례 폭발이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다쳤다”라는 뉴스가 올라왔다. 어떤 해커집단이 가짜로 올린 내용이었다. 이 바람에 미 증시는 직격탄을 맞아 시가총액 1천 4백 달러가 단숨에 날아갔다.

가짜뉴스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전쟁이나 전염병, 재난 등이 닥치면 가짜뉴스는 더욱 활개를 친다. 뉴스나 정보가 검열 및 통제되면 유언비어 등과 함께 가짜뉴스는 입소문을 타고 더 널리 번져 나간다. 올해는 정치권이 가짜뉴스의 온상지로 지목될 만큼 유독 심했다. 광우병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최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소셜미디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 정보 유통

업체로 우뚝 섰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허위정보와 음모론, 선전 낚시 보도를 대거 생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이 유독 강하게 요구되는 까닭이다.

여기다가 최근엔 AI(인공지능)마저 이 가짜뉴스에 한몫하고 있다. 하마스 공습이 시작됐을 때이다. 영국 BBC 방송 ‘바로나 마크’ 기사가 소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시 소식 기사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아다녔다. 그런데 정작 마크 기사는 파키스탄의 방송인 ‘로하 나담’의 프로필을 AI로 합성해 만든 가짜로 밝혀졌다. 최근 설즈버거 NYT(뉴욕타임스) 회장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짜뉴스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정통 언론사에서 낚시 등 일부 기사는 이미 AI가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이내 인공지능이 온라인 콘텐츠의 거의 대부분을 제작할 것으로 내다본다. AI 전성시대가 되면 진짜뉴스와 가짜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동시에 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주간기독교가 창간된 지 벌써 53주년을 맞습니다. 창간 이래 주간기독교는 팩트, 즉 사실 보도를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기사는 거듭 확인 작업을 거쳤으며 반드시 반론을 게재했습니다. 주간기독교는 일방적이거나 추측 보도는 전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덕분에 독자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신의 성실한 매체로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도 주간기독교는 사실 보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가짜뉴스 추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능의 기능이나 활용을 잘하는 것보다 생각을 더 깊이하고, 넓게 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러지 않고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어느 순간 기술중독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요. 인공지능이 멋진 설교원고를 만들고, 가상공간에서 인간 신자들과 만나 설교를 듣는 시대가 도래하고, 오프라인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수는 있어도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돌봐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오늘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수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과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영역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되었지만, 인간의 호흡과 생명, 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수많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수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AI 시대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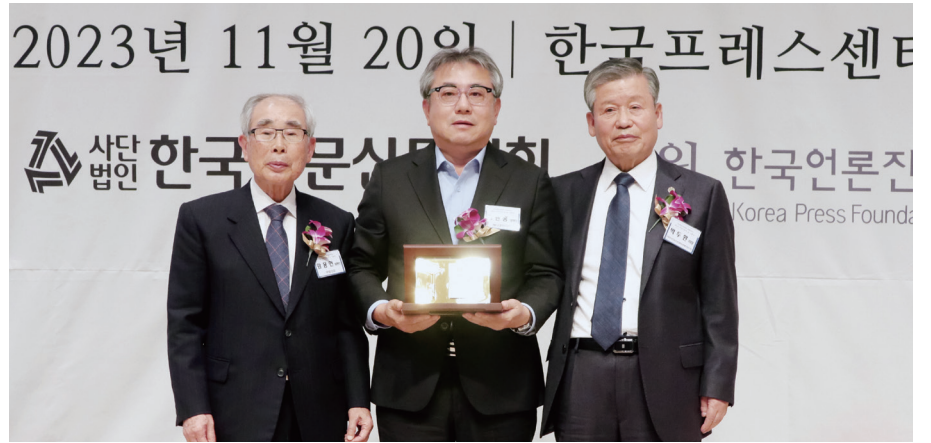
세상은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한국과 북한에서도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

를 키우기 위해 STEM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S는 사이언스의 과학이고, T는 테크놀로지의 기술이며, E는 에듀케이션의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M은 매스매티크의 수학이예요. 이처럼 과학과 기술, 교육과 수학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교육인재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의 방식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예요. 교회는 기독교적인 STEM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 예로 S는 소셜 스피리처로 사회적 영성, T는 트렌드 테크놀로지로 대표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복음사역에 활용하자는 뜻이고, E는 인성교육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성교육이예요. 단순히 기능적 교육이 아닌 인성교육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M은 미션으로 사명, 또는 선교예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중랑구에 있는 영안장로교회인데요. 영안장로교회는 사회적영성과 다음세대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교회예요. 예를 들면, 담임목사이신 양병희 목사님은 영안교회에 있는 중랑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쌀 10Kg 1,000포를 매년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사랑의 박스를 통해 미혼모 가족이나 홀로 사는 분들에게 전달했어요. 이외에도 겨울에는 연탄 봉사하고 있고, 청년 펀드를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2023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 수상소감 ◇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종철 한국임업신문 발행인이 강수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및 가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홍 미디어칼럼저버 발행인이 동암언론상 수상 후 협회 박두환 회장과 함용현 약업신문 발행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수상자 (왼쪽부터) 한국임업신문 김종철 발행인, 약업신문 전화수 전무이사(대리수상), 농촌여성신문 전우승 상무이사, 한국전문신문협회 박두환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 식품음료신문 이재현 취재부장, 국토매일 백지선 기자(대리수상), 물류신문사 김성우 미디어사업본부장.



2023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 (왼쪽부터) 한국전문신문협회 양영근 명예회장, 축산신문 김영길 편집국 부장, 일요저널 오경섭 대표, 한국전문신문협회 박두환 회장, 이뉴스투데이(독서신문) 방두철 대표, 가스신문 김재형 취재부 부장, 의학신문 황미선 편집기자, 원예산업신문 허수영 편집부 차장, 한국전문신문협회 함용현 고문.

★ 대통령표창



■ 김종철 한국임업신문 발행인

한국임업신문 발행인 김종철입니다. 창간 27주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문신문은 산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해진 산업은 무력해집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문신문과 멀어지려 하고 있으며 전문신문의 역량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문신문의 역량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전문신문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전문신문의 저널리즘을 확고하게 뿌리내릴 찬스가 지금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다양한 매체가 전문지를 위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전문지가 전문성으로 맞서 싸워 이겨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두환 회장을 비롯한 각 산업분야의 전문신문 발행인 대표 여러분께서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필수요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전문신문을 확장하고 전문신문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여건이 매우 취약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기필코 전문신문의 성공 역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전문신문의 앞날에 강력한 파워가 합축되기를 기원하면서 발행인 대표님들의 건승과 전문신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전화수 약업신문 전무이사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제59주년 및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축하합니다. 저는 약업신문사에 입사하여 39년이 되는 해에 큰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약업신문은 내년 3월, 창간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70년 세월 중 39년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늘 저의 부족함을 느끼며,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약업신문은 전문지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동종업계 선도기업이 될 정도로 앞서서 실행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창간호부터 지면 기사를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산업 및 공공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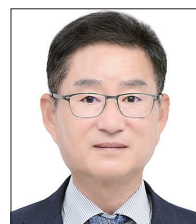
또한 전문언론은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일조하고 있으며, 동암약의상, 동암언론상, 약국경영대상 등 각 분야에 걸쳐 시상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문신문은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평가가 되어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문신문의 발전은 곧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산업 발전에 계속해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전문신문인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산업체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4차산업에 진정으로 필요한 전문 언론인 육성과, 훌륭한 콘텐츠 발굴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전우승 농촌여성신문 상무

2023년 전문신문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함에 있어 적지 않은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17년간 농촌여성신문에 몸담은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과 열정 덕택으로 수상의 영광을 얻은 것이기에 이 기쁨 또한 농촌여성신문 모든 임직원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은 각종 산업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며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신문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신문의 발전은 선진국가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대 환경에서 농촌여성의 사명과 역할은 해마다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촌여성들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유통과 체험농장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엔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등을 통해 농산업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며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신문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업, 농촌의 주역인 농촌여성들의 권익을 더욱 열심히 대변하며, 독자에게 더 신속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도를 높여 농업·농촌 발전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모든 전문신문들이 높은 이상과 굳센 신념을 바탕으로 더 큰 성취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재현 식품음료신문 취재부장

유능한 기자가 특별히 좋은 기사를 작성해서 받는 상이 아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정론을 펼치라는 의미에서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음료신문은 올해로 창간 2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중 저는 절반가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간 업계에는 마케팅력을 심어주고 정부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계에는 학문적 창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업계는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상 이변, 러-우 전쟁, 이-팔 사태 등 국제적 분쟁까지 야기되며 전정부지로 치솟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각 국가별 무역장벽과 규제 등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식품음료신문은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시장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선 국토매일 기자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은 전문기자로 더 성장하라는 의미이자 사명감을 갖고 독자에게 다가가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통한 정보전달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엄청난 정보홍수시대를 만들었으며 정보의 가치 또한 독자들의 선택권에 따라 좌우되는 언론환경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한가운데서 전문신문은 정보의 차별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전문화를 시도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뛰는 기자로서 남보다 앞선 감각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핵심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희망과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의 지표가 되는 주거복지, 교통 및 인프라 등 굵직굵직한 정책이슈들을 쏟아낸 국토매일은 “전문기자들이 만든 전문신문”이라는 슬로건아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정책개선 및 해법제시 등의 전문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더 강한 사명감으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표창이 개인의 수상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새겨졌습니다. 다시 한 번 이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우 물류신문 미디어사업본부장

“전문신문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어 기쁘고, 한편 쑥스럽습니다. ‘그동안 애썼다’ 하는 위로요, ‘앞으로도 네 몫을 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는 충고로 생각합니다.

제가 26년 함께 해온 물류신문은 경제의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는 1997년,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물류가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류 강국’으로서 지구촌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사반세기, 물류신문은 부족하나마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과 국가 물류경쟁력 향상에 있어 나름의 역할을 해 왔노라 생각하며, 제가 일원으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왔음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융·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문신문 역시 특정 분야를 넘어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융·복합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신문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역량을 키움에 있어서는 내부의 노력과 함께 외부의 조건 성숙이 따라야 합니다. 전문언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이 전문언론과 전문언론인의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순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부소장이 '인공지능 활용과 전문신문 발행'을 주제로 식전 세미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식전 세미나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과현 애널리스트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최진순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부소장과 방두철 서울미디어그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3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 식전세미나 ◊

주제발표

인공지능 활용과 전문신문 발행

최진순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부소장



현재 전문신문을 비롯한 모든 매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위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같은 글로벌 매체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다니는 굉장한 독자 기반의 독자 중심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매체들은 공급자 관점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전문신문을 포함한 언론 매체들의 디지털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PC,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화를 위한 조건의 발전은 있었으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독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할 때이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전문신문은 각 산업별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와 협업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많은 매체들이 AI를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 위싱턴포스트 등 자금이 뒷받침 되는 매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개발만이 방법은 아니다.

먼저 AI는 원칙과 방향이 명확해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각 매체들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후 수립이 세워졌으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어 기반인 챗GPT 또는 AI 관련 개발 업체들을 찾아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매체들이 관내 대학 스타트업 등 관련 업체들을 찾아 프로젝트 협업을 제안하며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가만히 있어서는 현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것이 앞으로 전문신문을 비롯한 언론계에 AI가 놓여 있는 현실과 도전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토론

허과현 애널리스트협회 회장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이 상태로는 안된다,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변화의 필요성이다.

현재 챗GPT가 나온 후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과연 관중은가 생각하며 위기를 느꼈었고,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우려와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우리 전문신문의 특징점은 첫째, 취재의 범위를 특정 산업과 업무에 국한하고 있다. 둘째, 현장 밀착형 취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미디어보다도 기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뛰어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실 AI를 활용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저널리즘의 원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놓쳐선

안된다. 그렇기에 챗GPT 등 AI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사람이 다시 팩트를 체크해야 하는 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신문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종사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독자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 오늘 토론에서 얻은 결론인 것 같다.

방두철 서울미디어그룹 대표



주제발표에서는 모든 언론에게 놓여진 현실과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그동안 매체를 어떻게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전하고자 한다.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언론 환경도 많이 변했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다. 종이신문을 시작으로 온라인을 거쳐 영상 그리고 AI까지 넘어왔다. 현재 전문신문이 AI를 활용해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아직 전문신문은 이를 논의할 만큼의 단계로 넘어오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I를 생각하면 챗GPT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과연 전문신문 매체 중 챗GPT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해본 곳이 몇 개나 될 수 있을까. 아직 기초적인 활용도 시작해보지 못한 매체가 많은데 지금 AI 도입을 논의하는 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전문신문이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는지 진단하고 혁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세워야 한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 관심과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주제발표에서 확인했듯이 AI 도입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앞으로 전문신문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 각 매체마다 놓인 현실에 맞춰 혁신을 위해 전진할 수 있길 바란다.

최진순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 부소장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언론단체들은 힘을 잘 합친다. 그래서 기술 관련 이슈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방향과 이익을 찾아가고 있다.

전문신문 언론계도 협회 차원에서 회원을 중심으로 미디어 이슈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후 우리가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AI를 아직은 바로 대입시키기 어렵다면 실현 가능한 기술적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점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요즘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지만 레퍼런스를 필요로 하는 곳들도 꽤 있다.

당장 AI를 도입해서 적용시킨다는 마인드 보다는 우리가 어떤 독자와 접점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정보를 원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고 이를 위한 기술엔 어떻게 필요한지 찾아간다면 분명 해결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현장·단독 |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급물살...한덕수 총리 “현실화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1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규정 개정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식사비 한도의 경우 그동안 한도 상향조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다 최근 물가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규제완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외식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식사비 한도 규제에 대해 외식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홍일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

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전경식 외식업중앙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수 소비경제의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8년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조정해달라고 권익위에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은 7년간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문화가 없어지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식사비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또한 “식사비 한도는 사회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금품 수수 금지의 경우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는데 법률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변동이 이어졌는데 △2017년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2022년 설부터는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2023년 8월 30일부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설날과 추석명절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는데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기사제공: 국제신문(11월 17일) 이예름 기자

취약해진 국내 생산 기반, 정부 지원 시급

렉토, 아모멘토, 시에, 시엔스 등 새로운 주류로 부상한 신진 브랜드들은 상품의 90~100%를 국내에서 생산한다.

해외 생산을 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도 국내, 해외 프리 오더와 메인 오더를 한 시점에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은 필수다.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 국내 생산 기반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렉토’ 관계자는 “해외는 가까운 중국도 사고가 많고, 만족할만한 퀄리티 구현이 어렵다. 국내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를 거치며 봉제 공장이 많이 줄었고 고령화 되면서 새로운 감성이나 시각의 접근이 어렵다. 테크니적으로 다른 시도를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몇 년간은 버티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패턴, 봉제 등 기술자 육성에 실질적인 지원 확대 노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창신동 봉제업체 한 관계자는 “봉제 공장이 코로나 이전 대비 30~40% 줄었다. 실제 미아리, 창신동 등지의 10군 데 중 4~5군데가 문을 닫았고, 미싱사, 재단사 등이 요양보호사, 식당 등으로 많이 이직했다”며, “60대 이상이 80~90%고, 50대는 공장 당 1~2명 있거나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봉제를 접고 해외에서 만들어 들여온 제품의 라벨 등을 마무리하는 완성공장으로 돌려버린 곳도 많다. 전문인력 이탈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재단은 로봇 등 최신 설비가 대체할 수 있지만 미싱 봉제는 기계가 대신하기 어렵다. 원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하고, 실제 로봇이 사람보다 느리다. 한 공정마다 틀에 맞춰 다시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3장 이상 할 시간 동

안 1장 정도 제작이 가능하고, 완성도도 떨어진다. 전문인력이 절실한 이유다.

봉제업계 관계자들은 많은 협회들이 협업보다는 과벌싸움에 더 몰두하고, 효율 없는 박람회 등 관상용,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실제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적인 지원 방안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빠른 결제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다. 브랜드 업체들이 1달~1달 반이 지나 결제하고 불량률의 최종 책임을 지우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통 플랫폼들이 브랜드들에 결제하는 시기도 당길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두 번째는 인건비 지원과 20~30대보다 여성 경단녀 등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실무 투입 지원이다. 전 정부에서 경단녀 인건비의 20~30%를 보전해주는 지원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한국 영주권이 있는 동남아 출신 주부 등 유입이 늘어난 전례가 있다.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2세대의 가업 승계 지원 제도를 마련, 전통이 있는 회사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도록



이끌고, 기술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업에 대한 대대적인 의식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나브라더스 김나운 대표는 “2018년 일본 봉제 연수를 갔을 당시 정부의 지원 결과로 40대 인력이 많은 현장을 봤다. 봉제 거리 팸플렛을 만들어 어느 누가 와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봉제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현장 실무 지원이 인상 깊었다. 우리도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어퍼럴뉴스(11월 20일) 조은혜 기자

| 현장·단독 |

리바트 믿고 인테리어 공사했더니 ‘밥도 못먹을 지경’

부산의 A씨는 리바트를 믿고 부산의 리바트 집테리어 000점에 부엌 싱크대와 욕실시공을 맡겼는데 결국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집에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욕실에서 씻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리바트 본사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원망스럽다”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니 언론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싱크대 부실시공 관련과 A씨는 “천장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싱크대 상부장을 설치해 쿡탑에서 후드까지 40cm가 안 된다. 인덕션을 매립해도 43cm다. 라면만 끓여도 물기가 맞힐 정도이며, 시공 후 보름만에 상부장 표면이 일어나고 있고, 높은 냄비는 뚜껑도 후드에 닿고, 국자도 걸린다”고 밝혔다.

또한 “빌트인세탁기 모델명 및 설치공간 사이즈를 정확히 알려줬는데도 높이는 25mm, 넓이는 10mm나 크게 하부장이 시공되었으며, 빌트인세탁기는 상단 철판이 흰색 보인다”면서 “인덕션은 상판에 구멍만 뚫어 설치되었는데, 하부장 2개 사이를 파내고 걸쳐만 놓았으며, 싱크대 기역자 코너에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벌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욕실공사의 경우 샤워실 배수가 불량인지 샤워 후 바닥에 물이 안빠져서 1달이 지나가도 집에서 샤워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공사는 원래 아래층 누수사고로 욕실을 수리하면

서 시작되었는데 누수배관 공사 후 아래층집의 복층부분 도배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막상 아래집에 가보니 누수로 손상된 부분만 사각형으로 막아놨는데 이걸 매우 불성실하게 느껴졌다. 도배를 제대로 해주어야 하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 A씨는 상담시 3일이면 공사가 충분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10일간 진행됐다.

A씨는 공사를 시공한 대리점에 항의를 했지만, 하자가 아니라면 답변으로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자 직접 리바트 고객센터에 1:1문의, 고객의 소리 등으로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는데, 고객센터는 한달째 답이 없고 이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신문은 인테리어 전문가에 의뢰하여 검증을 요청했는데 B씨는 “요리를 하지도 못할 정도인데도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고 발뺌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상당부분 하자로 보이는데 조그만 인테리어 업체도 아닌 리바트라는 대기업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다시 공사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리바트 관계자는 “고객과 대리점 사이에 오해로 A/S 접수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본사에서 내용 파악 즉시 현장으로 담당자를 파견해 고객과 직접 소통후 오해를 풀었고, 보수 공사 등 A/S서비스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국건설신문(11월 16일) 김덕수 기자



‘철근누락’ 아파트 안전진단 계획 뒤엎은 LH...“입주민 동의도 없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내는데 아직도 어떠한 점검이나 보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부실시공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고지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입주민들은 사전 안내된 대로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LH 측은 안전점검만 진행된 다른 부실시공 아파트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뉴스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LH가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별도 고지한 이후 입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진단 수준을 변경,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단지는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발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지하주차장 기둥 주두부 16개소 중 15개소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A25 ‘별내퍼스트포레’ 단지다.

해당 조사가 이뤄진 후 지난 7월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별내퍼스트포레 입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LH 측과 공동으로 외부기관을 선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진행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됨에 따라 지난 8월 국토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의 안전점검 조사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LH가 돌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LH 본사 측은 “해당 아파트만 주거동까지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안전점검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단지만 아파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다른 부실시공 아파트에서도 안전점검이 아닌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사실상 앞서 현지 지사가 안내고지한대로 안전진단이 이뤄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을 피하겠다는 조치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 주거복지와 안전한 주거환경 실현’이라는 LH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원색적 비난도 나온다.

입주민 협의회 관계자 A씨는 “부실시공 아파트로 확인된 이후 주민들은 하루도 멀쩡히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LH의 무책임함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원래 안내한 대로 안전진단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계획 변경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은 발주처인 LH의 책임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원래 계획을 변경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별내퍼스트포레의 경우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차원에서 별도 안내문을 사전에 배포해 입주민들에게 문서로 사전 고지했다는 점과 LH의 과실로 인해 입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후 국토부 지시 및 LH 본사의 계획 변동에 따라 당초 예정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협의대상자인 입주민 협의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LH 측은 주민설명회를 열고서도 입주민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이에 입주민 협의회는 LH의 안전점검 계획을 거부하고 당초 안내된 주거동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LH 측은 이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문제는 또 있다. 당초 LH가 고지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일반적인 육안 조사와 더불어 상세한 장비조사가 병행 실시되며, 외



관 조사와 간단한 내구성 조사에 더해 추가 조사 및 변위 조사와 해당 구조물의 안전성 수준을 점검하는 구조안전성평가, 보수보강안제시 등 복합적 절차가 이뤄지는 종합 조사다.

반면 안전점검의 경우 외관 조사와 간단한 장비 조사, 변위 조사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도나 내구성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사설안전진단 업체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은 적용 범위와 이유 자체가 엄연히 다른 조사다. 앞서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는 안내가 이뤄진 것만 보더라도 해당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요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안전점검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정밀안전진단 시행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을 것이다. 비용적인 문제로 인한 판단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밀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LH가 설계 데이터 자체를 계획 변경을 이유로 안전진단 업체에 내놓지 않으면서 조사는 커녕 기본적인 보강 및 보수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설계사무소의 영업노하우 등의 사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 공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기사제공: 이뉴스투데이(11월 17일) 고선호 기자

기자 수첩

수소연료전지연구회에 거는 기대

가스신문 한상원 기자

청정건축물연료전지협의회가 해체되고 수소연료전지연구회가 새롭게 발족해 연료전지 업계의 긍정적 변화를 예고했다.

협의회는 2021년 11월에 출범했지만, 이미 2012년부터 10년간 연료전지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를 다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의 고도화와 초기 시장진입 실현을 위해 산·학·관 공동연구개발을 하며 운영된 건물용 연료전지 협의회가 연구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린 연구회는 두산퓨얼셀이 회장사이면서 지난해 11월에 협회로 산업부 승인을 받은 '한국연료전지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

협회는 연료전지와 관련한 정책·사업 부문을 맡게 됐고, 연구회는 연료전지 산업화에 관한 기술연구를 맡아 활동한다. 이로써 기존 협의회에 있던 회원사들도 변화에 발맞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일 것을 약속했다.

과거부터 항상 지적된 연료전지 가동률, 비싼 가격, 기술력 등에 대한 오해를 정확한 연구와 실증으로 입증된 정리 자

료를 보여줄 계획이다.

항상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로 연료전지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남긴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완벽하게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 859MW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는 1GW의 보급률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전세계 1위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분산 에너지시스템 활성화 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있는 현시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산학연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기술력 향상 등이 필요하다.

이번 협회와 연구회의 역할 분담에 따른 화합이 연료전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바란다.



장자 교단의 역할

기독교신문 송상원 기자

개혁의 가치를 내건 108회기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총회는 선관위 1000만원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108회 총회결의를 이행하고자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같이 먼저 교단 내 개혁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교단 밖 상황에 대해 무관심해선 안 된다. 예정합동이라서, 장자 교단이기에 그렇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가 설 곳을 잃고 있다. 체감상 교회의 신뢰도는 급락 수준이고, 청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교회답지 않은 태도로 불합리한 행태를 벌인 한국교회가 좌초한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때 합동총회가 교단 개혁에 힘쓰듯, 한국교회를 변화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합동이 앞장서 교회다운 교회, 합리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연합사업을 통해 그와 관련한 일들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이웃 교단과 동력을 모으는 것도 좋다.

지난주 통합총회와 채택한 공동성명서가 좋은 예다. 합동과 통합 총회임원들은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혼탁하게 만들 여지가 있는 악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협력하

고 기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외되고 아픈 이들에게 형제애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양대 교단의 협력은 한국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부터 가동한 한국장로교 4개 교단(합동, 고신, 대신, 합신) 대외협력 간담회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 고신, 대신, 합신은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둔 형제 교단이다. 총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 교단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총회가 한국교회 개혁과 회복 방안을 제시한다면 세 교단도 기꺼이 함께할 것이다.

나아가 한장총 상임회장에 선출된 권순웅 목사를 통해 장로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고, 종로5가를 활보할 총회총무와 대외협력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총회가 할 일이다.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합동이 헌신하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진짜 장자 교단이 되길 기대한다.



'전청조·유아인·조민'과 '식약처'의 공통점

약사신문 최선재 기자

유아인, 조민, 전청조 사이에는 공통된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조민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조민의 유튜브 홍삼 홍보 영상을 부당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유튜브에 요청해서 삭제했다. 정부가 신고로 영상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면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전청조도 다르지 않다. 식약처는 최근 전청조가 남현희를 속이는데 사용한 가짜 임신테스트기의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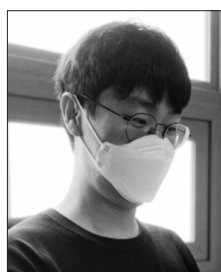
유명인을 중심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식약처가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이는 오유경 식약처장 부임 이후 두드러진 일이다. 이의경, 김강립 등 전임 식약처장 재직 시절에는 식약처가 이슈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전적이 없었다.

그러나 팜뉴스 보도로 실상이 알려졌다. "정말 통관을 막은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식약처 관계자는 "막지 않았고 앞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

다. 심지어 관세청은 팜뉴스 측에 "저희는 식약처의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 전혀 상의 없이 보도자료에 저희 청이름이 나와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식약처가 앞으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슈의 폭발력이 클수록, 식약처의 '성과 부풀리기'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상에 기초한 식약처식 성과 부풀리기는 갈수록 진화 중이다. '발단'이 엄홍식이고 '전개'가 조민이었다면, 이제는 전청조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오유경 식약처장이 연속된 경고음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인다. 성과 부풀리기의 '절정'과 '결말'은 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양치기 소년의 진심을 들어주고 지지해줄 국민이 있을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설사 그게 소설이 아닌, 진짜라도 말이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량 확보 관건

원예산업신문 윤소희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 및 소비 둔화, 엔저 장기화 등 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신선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수출국가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정책을 펼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올해 냉해, 폭우, 태풍 등 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생육기 상여건의 악화로 사과, 배, 포도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출물량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과일 생산량 전망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년 대비 사과는 23%, 배 20%, 포도 2%, 단감은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는 특히 하나 내수물량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나가야 하는 수출규격에 맞는 물량을 마련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출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사이즈나 당도, 모양 등의 기준이 맞는 물량이 그간 수출로 이뤄져왔던 물량에 비해 체감상 절반 이상 정도가 줄어 국내 수출 관계자들은 물론, 해외바이어들도 고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물량 맞추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저품질 및 크기나 당도 등 선호도가 낮은 특성을 가진 과일들이 수출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엔 한국산 과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선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생산여건이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농가가 꾸준한 생산량을 내며 농사를 이어갈 수 있게 재해 예방, 현장 지도, 스마트화 등 생산 분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 마케팅도 중요하나, 수출이 가능한 물량부터 제대로 확보돼야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이미지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청조·유아인·조민'과 '식약처'의 공통점

약사신문 최선재 기자

유아인, 조민, 전청조 사이에는 공통된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조민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조민의 유튜브 홍삼 홍보 영상을 부당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유튜브에 요청해서 삭제했다. 정부가 신고로 영상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면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전청조도 다르지 않다. 식약처는 최근 전청조가 남현희를 속이는데 사용한 가짜 임신테스트기의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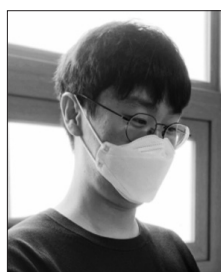
유명인을 중심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식약처가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이는 오유경 식약처장 부임 이후 두드러진 일이다. 이의경, 김강립 등 전임 식약처장 재직 시절에는 식약처가 이슈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전적이 없었다.

그러나 팜뉴스 보도로 실상이 알려졌다. "정말 통관을 막은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식약처 관계자는 "막지 않았고 앞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

다. 심지어 관세청은 팜뉴스 측에 "저희는 식약처의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 전혀 상의 없이 보도자료에 저희 청이름이 나와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식약처가 앞으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슈의 폭발력이 클수록, 식약처의 '성과 부풀리기'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상에 기초한 식약처식 성과 부풀리기는 갈수록 진화 중이다. '발단'이 엄홍식이고 '전개'가 조민이었다면, 이제는 전청조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오유경 식약처장이 연속된 경고음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인다. 성과 부풀리기의 '절정'과 '결말'은 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양치기 소년의 진심을 들어주고 지지해줄 국민이 있을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설사 그게 소설이 아닌, 진짜라도 말이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량 확보 관건

원예산업신문 윤소희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 및 소비 둔화, 엔저 장기화 등 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신선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수출국가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정책을 펼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올해 냉해, 폭우, 태풍 등 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생육기 상여건의 악화로 사과, 배, 포도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출물량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과일 생산량 전망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년 대비 사과는 23%, 배 20%, 포도 2%, 단감은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는 특히 하나 내수물량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나가야 하는 수출규격에 맞는 물량을 마련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출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사이즈나 당도, 모양 등의 기준이 맞는 물량이 그간 수출로 이뤄져왔던 물량에 비해 체감상 절반 이상 정도가 줄어 국내 수출 관계자들은 물론, 해외바이어들도 고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물량 맞추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저품질 및 크기나 당도 등 선호도가 낮은 특성을 가진 과일들이 수출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엔 한국산 과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선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생산여건이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농가가 꾸준한 생산량을 내며 농사를 이어갈 수 있게 재해 예방, 현장 지도, 스마트화 등 생산 분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 마케팅도 중요하나, 수출이 가능한 물량부터 제대로 확보돼야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이미지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읽기 뉴스읽기 공모전·청소년 체커톤 대회 통합 시상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은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HIT 대회의실에서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읽기 공모전' 및 '제5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의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통합 시상식은 각 공모전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 등 2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미디어 리더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읽기 뉴스읽기 공모전은 전국민이 뉴스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제4회 공모전은 지난 해 8월 뉴스읽기장을 배포하기 시작해 실물일기장 5천권과 온라인 일기장 3천 5백여 권을 배포하였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300명의 인원이 작성한 975건의 일기장을 접수했고 총 65건의 일기장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14건의 우수지도자상을 포함하여 이사장·금·은·동상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6,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사장상을 수상한 김단아(명지고 1년) 학생은 “단순히 뉴스의 내용을 요약·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및 주장 등 자신만의 목소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앞으로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 체커톤 대회는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여 동안 진행되었다. 예선 단계를 통과한 본선 진출팀은 2개월에 걸쳐 전문가 피드백을 받은 리포트를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고, 지역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했다. 학생들은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

텐츠를 제작해 지역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한민국 대형 산불’을 주제로 다큐 영상을 제작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중학교의 아띠나래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부산에 나쁜 수돗물은 없다’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한 경성대·부산대학생들로 구성된 땅커톤팀이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장관상장과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로니상, 매니저상 등을 수상한 20개 팀에 총 3,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정부공용스튜디오’ 개소로 정책 소통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정책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정책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47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부공용스튜디오’를 마련한다. 지난 11월 22일에 개소한 ‘정부공용스튜디오’는 공간 제약이 있는 일반 스튜디오와 달리 LED 벽면과 실시간 렌더링, 카메라 위치 추적 등 ‘확장현실(XR)’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튜디오 공간을 가상현실로 확장해 밖에 나가도 몰입감 있는 실감형 현장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부처는 외부 스튜디오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부 부처



도 크로마키 등 별도 합성작업이 필요한 일반 스튜디오 중심이라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확장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확장현실 스튜디오 활용 교육

을 진행하고, 활용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스튜디오 사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공용스튜디오가 정부의 콘텐츠 경쟁력과 정책 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체계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불법복제 대응 관련 기관을 초청해 지난 11월 8일 제이더블유메리엇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제4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2년부터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의 관련 기관을 초청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4차 세미나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검찰, 법원,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베트남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고 한국 교민도 17만 명이 넘는 나라

다. 지난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에 협조가 꼭 필요한 핵심 국가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 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돕는 따뜻한 문화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빛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23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개방 우수기관 시상식’이 지난 11월 15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개방한 공연, 전시, 축제, 영화, 도서, 게임 등의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혁신적인 우수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문화데이터 기반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한 경진대회에 총 17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3개 부문 총 14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드) 솔루션을 개발한 ‘스튜디오 파티클’ 팀이 받았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보행 약자를 위해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관광지와 공공시설 등의 안전한 이동 경로, 최단 거리 등을 제공한 ‘무장애 모빌리티 증강현실 투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표한 ‘엘비에스테크’ 팀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성격유형검사인 엠비티아이(MBTI) 형식의 검사방식을 차용해 어르신에게 개인 맞춤형 취미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안한 ‘실버라이닝’ 팀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전통 전각을 활용해 나만의 도장 디자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낸 ‘실 마스터(seal master)’ 팀이 받았다.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은 여러 명의 화자를 각각 인식해 수어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사인 인(sign in)’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게이미케이션 기법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관광지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발표한 ‘웨이플러스’ 팀이, 우수상은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안내(가이

‘데이터분석’ 부문 대상은 대한민국 성인 독서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선호 영화와 도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선호도 높은 도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은 ‘냥냥펀치’ 팀이 받는다. 최우수상은 케이(K)-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국내 도시와 해외 도시의 유사도를 분석해 여행지 추천을 제안한 ‘기저시대’ 팀이, 우수상은 서울 시내 무장애 공공체육시설 입지를 분석한 ‘문전박대’ 팀이 수상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디지털리터시 운영학교 실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미디어리터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디지털리터시 운영학교’를 실시했다. 디지털리터시 운영학교는 11월, 한달 간 진행되며, 뉴스·미디어리터시, 스마트폰 영상촬영·편집, 디

지털민성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무극초등학교, 충주남산초등학교, 분평초등학교, 수곡중학교, 흥덕고등학교, 서원고등학교 등 충청북도 소재 13개 학교의 특수학급이 참여했으며,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파견을 통해 학교별 3~4회, 8시간 내외의 교육을 지원했다.

회원사 동정

농수축산신문

2024 농식품유통전망 개최



농수축산신문(발행인 김경민)이 '2024 농식품유통전망'을 오는 11월 30일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2024년 농식품유통 시장 트렌드와 전망 △정부의 농산물 유통혁신 방안 △2024 농식품 온라인·라이브커머스 시장 전망 △유통시장 데이터분석 '3고 시대 신선식품 소비동향' △2024년 농식품유통업계 상품동향 △디지털 혁신기술이 만든 농식품 시장 동향 등 총 6개로 진행된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agrofoodoutlook.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85-0091(내선 121)

농업인신문

2023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



농업인신문(발행인 박대조)을 발행하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2023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을 경기도 수원시 농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지방농정분야 △국가농정분야 △농촌진흥분야 △농업인분야 △농산업분야 등 분야별로 지난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추천서를 접수받아 1차 서류 심사, 2차 본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농수축산신문

물류신문-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업무협약



물류신문(발행인 장대용)은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과 물류신문

산하 물류산업연구원 회의실에서 '물류산업 활성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반 지원사업 수행과 발전방안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학·연·관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과 제도 연구, 관련 행사와 학술 활동, 기타 유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병원신문

대한병원협회-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



병원신문(발행인 윤동섭)을 발행하는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민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의료 지원 및 구호 활동 등 인명 구조와 피해 복구 △긴급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실천 △생명 나눔의 가치에 공감하고 헌혈문화 확산 △의료질 향상과 국민 안전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ESG 경영 실천 협력 등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세무시신문

한국세무사회-국세동우회 업무협약

세무시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는 국세동우회와



세무사회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세무회계분야를 비롯해 양 기관의 회무추진 등 유익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콘텐츠 신규발굴, 자원봉사를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 기관의 세무회계분야, 회무추진 등 콘텐츠 상호 교류 및 매체를 통한 대외홍보 협력 △양 기관의 소속 회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류 협력 △콘텐츠 신규 발굴 및 소속 회원들의 참여 도모 협력 △양 기관의 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진행 협력 △기타 자원봉사 등 상호 협력 가능분야 발굴이다.

이날 차담으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영세상공인 지원방안 및 국가바우처 지원제도 활용 등 국제동우회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건설신문

제4회 스마트건설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신문(발행인 양기방)은 '제4회 스마트건설세미나' 및 '스마트 건설인 송년의 밤'을 오는 12월 20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건설신문이 주최하고, 스마트건설교류회가 주관한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스마트건설 구현 '최신 디지털 기술 현황, 빌딩 IoT 솔루션 스마트 기술 적용 현황, '디지털 전환' 건설현장 일용직 매칭 AI 플랫폼 시스템, 신개념 스마트시티 SIROO △2세션-드론 등 건설현장의 스마트 기술 적용 현황, 국민의 안전을 비추다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레미안, 더넥스트', AI 인테리어 미래 △3세션-BIM 정보 플랫폼 기반 스마트 건설 BIM 데이터 응용시스템, BIM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BIM 기반 디지털 협업 플랫폼 개발과 활용.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신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8909-7968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경인교육대 업무협약



한국교육신문(발행인 정성국)을 발행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행정관 회의실에서 경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미래지향적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교원들의 현장 교육 연구와 연수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우수 교육자료 및 사례 발굴·확대, 자료 제공을 통한 연구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운영 지원 △양 기관 교원연수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원격연수 운영 지원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연구 등이다.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회장·발행인 박두환 명예회장·편집인 양영근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이한구·백용태·정재환·김관홍 이 사 이상호·이근호·양기방·박연준·오경섭 강현욱·강신영·홍준·김광탁·방두철 | 상임고문 방재홍 | 감사 이관차·허과현 | 고문 한기호·함용현·유태우·이덕수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이 컷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34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4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시간)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34년 전통 인쇄 기술력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 362-1199 / 영업부 02) 362-6677 / 전산실 02) 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온수동) Tel. 02) 2684-3377

2023년 10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3.10.01.~2023.10.31.)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서울 다50793	문화앤피플	(주)문화앤피플뉴스 (Culture&People News)
서울 다50792	더 뮤직 타임즈	(주)동현
서울 다50791	민족통일신문	고순계
경기 다50769	WEEKLY저널	(주)위클리저널
경기다50768	운정신문	(주)파주미디어그룹
경북 다01546	봉황신보	(주)매일신보

언론조정중재 사례집: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2022경기조정14·15·16/17·18·19
각 조정·반론·손배청구

토지 인허가 절차상의 부정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 반론 보도문 게재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건축설계업자 A 씨가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청탁을 했고, 관련 심의가 부결되자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이후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적이 없음에도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인 허위 제보만을 근거로 보도해 심각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 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 과정에서 다수의 제보자 진술과 입증자료 등을 확보해 조정대상보도를 작성했기에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청인은 심리 과정에서 인터넷 신문의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중재부는 반론보도를 게재와 피신청인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 보도 영상을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책자발간

시정신문
영화농장

시정신문(발행인 주동담)이 임동식 작가의 장편소설 '영화농장'을 발간했다.

이 책은 작가가 나고 자란 전남 무안군 일로읍 도덕리(道德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일제의 침탈과 해방, 6.25 전쟁 등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를 야무진 호남 사투리로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일제의 침탈과 함께 보릿고개, 6.25 전쟁 등 혹독한 혼란기를 반추하며, 세월의 뒤안길에서 영화농장의 아련한 정서도 그렸다.

작가는 주인공인 어머니를 불운한 운명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인간 승리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한국사의 큰 격동기를 오롯이 혼자 몸으로 버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향해 담담하게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영화농장은 현재 '시정신문'에 연재 중이며, 시중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한편 임동식 작가는 책 출간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부대 교수 박근수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자리에는 재경 일로동초 총동문회 명예회장 진무백, 재경일로 읍향우회 회장 도성장 법무사,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임춘식 박사, 시정신문 사장 주동담 박사, 문학평론가 김경오 박사 등이 참석했다.

임동식 작가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축하와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년 시절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격: 17,000원

문의: 02-798-5114



회원사 발행인 칼럼 |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디지로그' 시대의 독서신문

1970년 11월 8일 창간된 독서신문이 벌써 반백 년 하고도 삼 년을 더 달려왔다. 역동의 세월 속에서 흑백 타블로이드판 신문은 매끄럽고 화려한 컬러 잡지로 변했고, 독서신문은 새로운 뉴스 소비 패턴에 맞춰 PC, 모바일은 물론 SNS 채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애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태동한 뉴미디어와 비교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순간순간 생존법을 바꾸는 순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약 3년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면서 그러한 한계를 한층 더 절감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남들에게는 편리한 키오스크를 벽처럼 느껴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내 작은 절망에서 언뜻 독서신문의 희망을 보기도 한다. 올해 '4050 책의 해'를 맞아 열린 전문가 포럼을 들어보니, 최근 몇 년간 전체 연령대의 독서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40대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폭이 특히 커졌다. 그런 한편 4050 세대의 60% 이상이 '독서는 삶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었고, 이들의 인터넷신문 이용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당장은 삶에 치여 책 한 권 읽을 여유가 없더라도, 가슴속의 지적 욕망은 살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마침 현재 독서신문 홈페이지 이용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도 4050이다. 여러 사정으로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비독자' 상태라고 해도, 독서신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니 언제든 책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예비 독자', '잠재적 독자'다. 혹은 이미 '독자'였더라도 독서신문이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에 의지해 더 넓고 깊은 독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는 업계 종사자들도 장담하지 못한다. 과거 전자책이 등장하면서 종이책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전자책과 종이책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각자의 영역을 공고히 하며 경쟁자인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독서'의 세계에서 종이책의 아성이 예전 같지 않아져 아날로그 세대로서는 아쉬울 때도 있으나, 독서라는 개념이 시대 변화에 맞게 다층화되고 확장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사회가 급변하다 보면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니 독서신문 앞에 놓인 사명은 분명하다. '디지탈'과 '아날로그', '책'과 '독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책 읽는 대한민국'에 대한 창조적이고 포용적인 상상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회원사 원고모집

◆ 원고내용

형식 및 소재에 제한 없음(보도자료, 발행인 동정, 회원사 미담사례, 특종 기사 소개, 칼럼, 시, 수필 등)

◆ 대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접수방법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

◆ 문의

☎ 02-334-7251~2



12월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12월12일(1965년) 기독교신문

12월30일(1967년) 한의신문

12월15일(1966년) 치의신보

12월31일(1976년) 간호사신문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 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